**현대교회의 영적 수위(1)-릭 조이너**

****

† 현대교회의 영적 수위(1)

근래 성령의 임재로 인해 병 고치는 신유 은사와 귀신 쫓는 축사 은사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소위 "토론토 축복(the Toronto Blessing)"으로 알려진 운동을 우리는 기뻐하는 동시에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이유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기독인이었으면서도

여전히 그러한 구속의 체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울증이나 고통 또는 증오 등으로부터 해방되어 간증하는 대부분이 남여 성도들이

이미 이십 년 혹은 삼십 년 동안이나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에 체험해야 할 것들이

신앙생활을 해온 지 이삼십 년 뒤에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순간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듭난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고후 5:17)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면,

더 이상 과거에 대해 버림 받았던 아픔이나 분 냄을 느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올무 즉 우울증이나 고통에서 벗어난 것에 대하여는 기뻐해야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교회의 영적수위가 매우 낮은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새롭게 기독교인으로 태어난 시점으로 돌아가기에

급급합니다.

우리는 타락 이전 창조 때보다 훨씬 넘치는

"새로운 피조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것보다 훨씬 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던 똑같은 능력이

심지어 갓 태어난 기독교인에게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한 성도만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능력을 따라 행하고 걸어가면,

온 세상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릭 조이너이 "하나님의 강한 능력으로 역사하기" 중에서...)